

영미 학계에서의 동아시아 외교사 연구 동향

-비교사적 역사와 초국가적 역사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Wang, Sixiang*

머리말

1. 전근대 동아시아 외교사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
 2. 초국가적 역사 : 세계사와 지구사를 향하여
 3. 패러다임으로서의 'Empire'
: 초국가적 역사가 직면하게 될 번역과 용어 문제에 대하여
- 맺음말

* Postdoctoral Fellow, James Joo-Jin Kim Program of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Pennsylvania

대표 논저 : 2012, "The Filial Daughter of Kwaksan: Finger Severing, Confucian Virtues, and Envoy Poetry in Early Chosŏn.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25.2 ; 2014, "The Sounds of Our Country: Interpreters, Linguistic Knowledge and the Politics of Language in Early Chosŏn Korea." *Rethinking East Asian Languages, Vernaculars, and Literacies, 1000-1919* (Brill).

머리말

이 글에서는 최근 영미권 학계에서의 동아시아 외교사와 국제관계사에 대한 연구 동향을 ‘초국가적 역사(transnational history)’의 틀을 활용한 연구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여기에서 다뤄질 연구들이 동아시아 외교사에 대한 연구 성과 전반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며, ‘초국가적 역사’의 틀을 활용한 연구들을 모두 포괄하는 것도 아니다. 대신, 여기에서는 필자의 연구 분야인 한국 전근대사를 연구함에 있어 초국가적 사관이 어떤 문제를 환기시킬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한편으로 이 글은 그간 개인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느껴왔던 문제의식들을 나누기 위한 장이기도 하다. 초국가적 사관에 주목하게 된 것 역시 이 문제가 필자의 연구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본 글은 필자의 주 활동 무대인 영미권 학계, 특히 미국의 동아시아 연구(East Asian Studies)와 동아시아 역사(East Asian History) 학계가 마주한 관문과 어려움을 고스란히 드러내게 될 것이다. 대다수의 영미권 연구자들은 한국사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한국을 하나의 사례로서 활용하는 데 더 큰 관심을 보여 왔다. 이러한 학계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난제들이 등장하게 된다.

미국에서 한국사를 연구하다 보면 서양사, 중동사, 동남아시아사 등 지역 연구(Area Studies)를 하는 학자들이나 문학, 인류학, 정치학 등 역사 이외의 학문으로 동아시아를 탐구하는 이들과 주로 교류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담론이나 학설, 시각, 문제의식 등이 자연스럽게 논의되고 흡수되는데, 이는 다시금 본인의 한국사 연구에 투영되곤 한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학제 간 소통이 새로운 쟁점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에 본고는 몇몇 연구들을 단순히 ‘소개’하는 대신,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인 ‘초국가적’ 관점과 관련된 논의에 대하여 몇 가지 화두를 던져보고자 한다.

물론 이 중에는 이미 한국 학계에서 논의가 진행된 사안들도 포함되어 있다.¹⁾ 그럼에도 이 글을 통해 다시 한 번 문제의식이 환기되기를 바란다.

이 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동아시아 전근대 외교 연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조공-책봉 패러다임에 관한 것이다.²⁾ 이 패러다임 속에 내재된 중화중심주의(Sinocentrism)나 한화론(漢化論, Sinicization), 구조결정론(structural determinism) 등의 문제도 아울러 검토해 보고자 한다. 둘째로는 최근 활발하게 진행 중인 초국가적 역사 연구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제기하였으며 그 방법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주로 한국 전근대 외교사 연구에 활용할 여지가 높은 부분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에 더하여 역사 용어의 사용에 관련된 문제들을 되짚어 보았다. 특히 영미권에서의 Empire와 동아시아권에서의 제국(帝國)을 구별하여 활용할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동아시아의 현상을 영어로 된 용어를 활용해 묘사할 경우 종종 문제들이 발생하곤 한다. 그 중 하나가 겉보기에는 지극히 동양적으로 보이는 어휘들이 사실은 서구중심주의나 현대적 관점의 산물인 경우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흔히 사용되는 제국, 주권, 종주국, 조공국 등의 표현은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번역 문제를 다룬 세 번째 부분에서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세계화된 현대 사회에서 초국가적 역사 서술의 역할 및 초국가적 학술 교류의 전망을 논의해 볼 것이다.

1) 예를 들어, 박원호, 2012 「「동아시아사로서의 한국사」를 위한 마지막 提言」, 『歷史學報』 216, 33~56쪽

2) 조공-책봉 패러다임에 대해서는 Lynn Hunt, 2014 *Writing History in the Global Era* (New York: W. W. Norton), pp. 13~14 와 Thomas S. Kuhn, 1962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를 참조.

1. 전근대 동아시아 외교사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

‘조공-책봉’은 전근대 동아시아 외교, 특히 동북아 외교 질서의 주축이었던 한-중 관계를 설명할 때 빠뜨릴 수 없는 표현이다. 영미권에서는 주로 존 킹 페어뱅크(John K. Fairbank)의 대표작인 *The Chinese World Order*를 통해 조공(tribute)과 책봉(investiture)이라는 개념을 이해해 왔다.³⁾ 사실 지난 몇 십 년 동안 미국에서 진행된 전근대 아시아 외교사 관련 연구들은 이 연구로부터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그의 연구가 뛰어났기 때문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이에 반발하는 이들이 다수 등장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⁴⁾ 그럼에도 그의 관점은 여전히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일례로 20세기 이전 한-중 관계에 대하여 커크 라센(Kirk Larsen)이 2008년 펴낸 *Traditions, Treaties and Trade*는 청나라 후기 이홍장(李鴻章)과 원세개(袁世凱)가 조선에 시행한 ‘제국주의’ 정책을 페어뱅크가 묘사한 ‘전통적인’ 한-중 관계와 구분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⁵⁾

3) John King Fairbank, ed., 1968 *The Chinese World Order;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4) 예를 들어, 모리스 로사비는 페어뱅크의 이론에 지나친 일반화의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고, 제임스 에비아는 그가 예외와 실재를 과도하게 분리하여 파악하는 기능주의(functionalism)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비판을 가한 바 있다. Morris Rossabi, ed., 1983 *China among Equals : The Middle Kingdom and Its Neighbors, 10th-14th Centuri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9 ; James Hevia, 1995 *Cherishing Men from Afar : Qing Guest Ritual and the Macartney Embassy of 1793*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5) Kirk W. Larsen, 2008 *Tradition, Treaties, and Trade : Qing Imperialism and Chosŏn Korea, 1850-1910*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 Distributed by Harvard University Press)

페어뱅크는 조공-책봉과 무역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동아시아 전근대 외교 질서와 근대 서양 외교를 구별하였다. 여기에서 조공은 무역 관계를 맺기 위한 수단으로, 책봉은 계층적 정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명되었다. 그가 제시한 ‘Chinese World Order’나 조공-책봉 체계 등은 모두 ‘조공-책봉’ 패러다임의 틀로 이해할 수 있다. 비단 그의 설명 방식이나 용어들을 직접적으로 차용한 것은 아니더라도, 사실상 지난 수십 년 동안 동아시아의 여러 학자들은 페어뱅크의 분석틀을 활용해 왔다.⁶⁾

물론 그의 패러다임을 활용한 연구들이 모두 비슷한 해석을 내놓는 것은 아니며, 그의 논지를 한국사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지적한 학자들도 있다. ‘조선 중심의 외교 질서’를 잘 보여준 케네스 로빈슨(Kenneth Robinson)은 조공과 책봉 제도를 통해 외교사를 분석하였는데,⁷⁾ 이때 페어뱅크의 ‘중화 세계 질서’는 ‘조선 왕조 중심질서’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조공과 책봉, 무역이라는 분석틀은 활용되었다. 한편 렘코 브뢰커(Remco Breuker)나⁸⁾ 피터 윤(Peter Yun)은⁹⁾ 고려가 요, 금으로부터 책봉을 받은 사실이 ‘해동’의 자주성과 정치 체제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이들 역시 기존에 페어뱅크가 세웠던 동아시아 세계의 질서를 수정하기는 했으나, 그 핵심인 조공-책봉 패러다임을 버리

6) 구범진, 2010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조선-청 관계」 『동아시아 국제 질서 속의 한중 관계사 : 제언과 모색』, 동북아 역사재단, 서울, 293~380쪽, 특히 293~306쪽에 잘 드러나 있다.

7) Kenneth R. Robinson, 2000 “Centering the King of Chosŏn,”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59, no. 1, pp. 33~54

8) Remco E. Breuker, 2010 *Establishing a Pluralist Society in Medieval Korea, 918-1170 : History, Ideology and Identity in the Koryŏ Dynasty* (Leiden ; Boston: Brill)

9) Peter Yun, 2002 “Confucian Ideology and the Tribute System in Chosŏn-Ming Relations,” *Sach’ong* 55, no. 9

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논점에는 페어뱅크의 두 가지 주요 논지가 선명하게 남아있다. 하나는 조공-책봉 제도와 무역이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줄곧 조공, 책봉 행위로 구성되어 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일련의 새로운 시도들은 페어뱅크의 패러다임이 한국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지적해 내긴 했지만, 패러다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수십 년에 걸쳐 조공-책봉 패러다임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이 패러다임은 당대의 용어나 생각, 제도들을 잘 잡아내고 있고 이를 통해 전근대 외교의 상하 질서를 구조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외교적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패러다임에 지나치게 집중할 경우 여타 중요한 역사적 현상들을 간과할 가능성이 있다.¹⁰⁾

특히 그간 조공-책봉 패러다임의 장점으로 꼽혀왔던 당대 언론 기능에 대한 주목은 역으로 패러다임의 취약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언론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제도적 존재를 개념적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이었다. 조공과 책봉, 사대와 교린 등은 조선시대 사람들이 그들의 정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구체화시킨 개념들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를 다시 조공-책봉 관계나 사대교린 정책이라는 표현으로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개념, 관행, 예의, 제도 등의 요소들도 조공-책봉 관계의 큰 틀 안에서 다시금 구체화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할 때에도 여전히 조공-책봉 패러다임이 유효한 것인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큰 패러다임 속에서는 당시의 역사적 행위자들이 언론을 활용한 동기나 의도를 간과할 위험이 있기 때문

10) 물론 이는 조공-책봉 패러다임 뿐 아니라 ‘패러다임’이라는 틀을 활용할 때 늘 수반되는 위험 요소이기도 하다. Hunt, 2014 *Writing History in the Global Era*, pp. 120~122

이다. 현재 연구들은 조공, 책봉과 관련된 언론의 역할을 지나치게 구체화, 정상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조공, 책봉에 관한 다양한 현상들은 당시의 언론을 통해 개념적으로 구체화되었던 바, 이러한 개념들을 다시 전 근대 동아시아 외교 연구에 적용할 경우 객관성을 잃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조공-책봉 패러다임이 그 자체의 구체화를 설명해낼 수 없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한 시대의 외교 관계를 살펴보면서 그 특성에 따라 ‘조공-책봉’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어도, 왜 그러한 외교 관계가 등장하게 되었는지는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한·중의 조공-책봉 관계는 대체로 중국 정권의 성격에 따라 그 특징이 결정되곤 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 방식에는 강대국이 외교 관계의 구조나 문화를 결정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외교는 어디까지나 쌍무적 관계인 만큼,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상대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더욱이 조공과 책봉이라는 제도는 모두 중화의 황제국이 만들어낸 것이므로, 이러한 용어를 활용할 경우 황제국의 시각과 편견이 연구에 투영될 위험성이 높아진다. ‘중화중심주의 (Sinocentrism)’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¹¹⁾ 고려와 조선의 지배층은 중화 제국과 정치 언론을 공유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고려나 조선에는 ‘사대 외교 정책’과 조공 책봉 제도가 나름의 이념적 합리성과 개념적 규범성을 확보한 상태였다. 이는 ‘중화중심적 시각’에 기반을 둔 해석이 아니라, 당대 사료와 역사적 행위자가 이러한 이념을 내재하고 있었기에 도출되는 결과이다. 즉, 한국사 자체에 내재한 ‘중화주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중화주의 문제는 결국 한국사 자체에 내재된 중화중심주의나 중화우월주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최근 에블린 로스키

11) 이는 ‘신청사(新淸史)’의 핵심 논점 중 하나이다. Joanna Waley-Cohen, 2004 “The New Qing History,” *Radical History Review* 88, no. 1, pp. 193~206 ; 구범진, 2010 앞의 글, 304~343쪽

(Evelyn Rawski)가 펴낸 *Early Modern China and Northeast Asia*에서는 중화 문명의 내재화를 중화중심주의로 보는 대신에 문물의 ‘적용’과 ‘재적용’으로 풀어냈는데, 이러한 방식을 따른다면 얼마든지 다른 해석이 가능해진다.¹²⁾ 이 책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중화 문물을 흡수한 것은 단순한 문물의 전달이 아니라, 나름의 재적용 과정을 거친 것이며 그 과정에서 타협과 절충이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조선과 에도에서 ‘중화’는 단순한 외래 문물이 아니라 활용 가능한 문화이자 기술이었다는 것이다. 이때 문화의 전파는 수용 주체의 의도 및 역사적 파급력(historical agency)이 주요한 능동적 과정이었다.¹³⁾ 이 논지의 핵심은 중화 문물의 수용을 곧바로 ‘한화’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며, 조선에서 활용된 ‘중화’라는 개념이 중국 혹은 그 정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사를 연구할 때 ‘중화’를 특정 ‘국가’나 ‘민족,’ ‘문화’의 동의어로 이해하는 것은 큰 오독이라 할 수 있다.

사실 로스키의 문제제기는 중국사에서의 정복왕조(征服王朝, conquest dynasties)인 요, 금, 원, 청나라를 재해석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이들을 조선과 비교하면서 모두 중화 문물을 기술로서 활용했다는 공통점을 지녔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기본적으로 이들의 전통적인 정치 형태나 국가 경영 방식에는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그는 조선을 한국사의 범주로, 요·금·원·청을 중국사의 범주로 나누어 서술해 온 것이 근대적 민족사관의 결과물일 뿐이라고 꼬집는다. 조선이나 일본은 중국의 정복왕조들과 같은 틀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조선과 일본의 중화 문물 수용이 단

12) Evelyn Sakakida Rawski, 2015 *Early Modern China and Northeast Asia: Cross-Border Perspectiv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3) Agency는 인문/사회학계에서 자주 활용되는 표현으로, 어떤 대상이 그 존재만으로 그를 둘러싼 환경에 영향을 미칠 때, 나아가 결과적으로 환경 자체를 결정짓는 파급력을 발휘할 때 agency가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순한 ‘한화’가 아니었다는 입장은 ‘정복왕조 한화론’에 대한 철저한 반박인 동시에, 한국사가 중국사나 일본사 연구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¹⁴⁾

‘중화’라는 표현을 종족과 무관한 문화적 배경이나 보편적 기술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설명해 내야 한다. ‘조선 중화주의’를 보기에 앞서 왜 그들이 중화주의를 사용했는지를 먼저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로스키가 한국의 ‘조선 중화주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그가 한국사 전공자가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하나 근본적으로 영미권에서의 한국사 연구 성과가 부족했던 탓이라 할 수 있다. 여전히 ‘조선 중화주의’의 계통적 분석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학계의 최신 연구들을 활용하면서 영미권의 아시아 연구자들, 나아가 역사학계 전반과 소통할 수 있는 연구서를 써내는 것이 향후 과제라 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조공-책봉 패러다임을 넘어서야 한다. 이는 단순히 중화주의(Sinocentrism)를 극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패러다임 자체의 맹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중화 문물을 ‘적용’과 ‘재적용’의 관점으로 해석한다면, ‘조공-책봉’ 제도 역시 ‘중화 문물’의 한 요소로서 ‘적용’과 ‘재적용’의 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조선이 거시적 차원에서 외교적 환경을 결정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미시적으로는 명·청과의 조공-책봉 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그 관계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나름의 저의(底意)도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조선시대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조공-책봉과 관련하여 그 체계가 어떻게, 왜 지속되었는지 설명해내야 한다. 정치학자 데이비드 강(David Kang)은 조공-책봉 관계와 이를 지탱했던 외교적 질서들이 동아시아에 오랜 평화를 가져다주었다고 설명한다.¹⁵⁾ 물론 대몽항쟁,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14) Rawski, 2015 *Early Modern China and Northeast Asia*, pp. 7~10

15) David C. Kang, 2010 *East Asia Before the West: Five Centuries of Trade*

의 전란이 한국사에 큰 상흔을 남긴 것은 사실이나,¹⁶⁾ ‘백년전쟁’이나 ‘30년전쟁’ 등으로 고전하던 동시기 유럽을 떠올린다면 고려와 조선은 태평성대와 다름없었다고 할 수 있다. 조공 책봉 질서가 동아시아의 화평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했다면, 이를 단순히 ‘중국 제국’이 주도한 하나의 제도로 간주할 수만은 없다. 베트남을 연구하는 정치학자 브랜틀리 워맥(Brantly Womack)은 전근대 동아시아에서 광활한 중국 제국이 비교적 약세였던 베트남과 안정적 관계를 유지했던 데에는 상호 교섭 체계가 전제되어 있었고, 이는 지속성과 공동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강조한다. 즉, 조공과 책봉은 한 쪽의 일방적 실시로 가능한 것이 아니었으며 쌍방의 역할을 동시에 살피야 한다는 것이다.¹⁷⁾ 워맥과 데이비드 강은 정치학자이기에, 역사적 현상 자체를 상세히 분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역사학자라면 이와는 달라야 하며, 특히 영미권의 학자들은 이를 하나의 과제로 수행해야 한다. 변화가

and Tribut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16) 임진왜란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전쟁과 기억(War and Memory)으로 이를 설명하는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학사의 시각에서 군사 기술을 중심으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다룬 연구도 있다. Saeyoung Park, 2011 “Sacred Spaces and the Commemoration of War in Choson Korea” (Ph.D. Diss.,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 James B. Lewis, ed., 2014 *The East Asian War, 1592-1598: International Relations, Violence and Memory* (New York: Routledge) : Felix Siegmund, 2014 “The Circulation of Military Knowledge and Its Localization. Some Notes on the Case of Military Techniques in Late Chosŏn Korea,” in *Space and Location in the Circulation of Knowledge (1400-1800). Korea and Beyond*,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 Hyeok Hweon Kang, 2014 “Big Heads and Buddhist Demons: The Korean Musketry Revolution and the Northern Expeditions of 1654 and 1658,” *Journal of Chinese Military History* 2, no. 2, pp.127~89
- 17) Brantly Womack, 2006 *China and Vietnam: The Politics of Asymmet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2010 *China Among Unequals: Asymmetric Foreign Relations in Asia* (World Scientific Publishing Company)

어떻게 발생했는가는 물론, 어떻게 지속되었는지도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변동이 없었던 시대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자극이 있어야만 제도가 지속될 수 있는 법이다. 이는 문화적 계승이나 정치적 제도, 사회적 계층처럼 재생산이 가능한 메커니즘이 있어야 가능하다. 조공-책봉 체계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미시적 현상이 거시적 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이러한 영향력은 획기적 변화를 수반해야만 중요해지는가. 사실 외교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국이나 임진왜란, 병자호란, 갑오경장 등의 변동기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오랜 평온기의 외교정책도 검토해야 한다. 수 백 년 동안 수없이 작성되었던 표문이나 사신들의 시문, 반복적으로 거행된 예의 등을 단순히 특정 시기의 현상으로 치부해서는 곤란하다. 이러한 행위들은 이미 고정된 사대 관계나 조공-책봉 관계의 단순한 표상이 아니라 그 관계 자체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담당해왔기 때문이다.

2. 초국가적 역사 : 세계사와 지구사를 향하여

영미권 학계에서 최근 유행하는 키워드는 ‘초국가적 역사’이다. 이는 이른바 지구사(global history)나 세계사(world history)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초국가적 역사는 ‘세계화 시대’를 대변하는 역사적 패러다임으로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상태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트렌드가 한국의 전근대 외교사 연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초국가적 역사는 단순히 시각을 넓히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 일국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은 지극히 기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이민사를 연구하는 매 나이 (Mae M. Ngai)는 2012 미국 역사학자 학회(American Historians

Association) 학술지에서 초국가적 역사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넓게 본다면, 초국가적 역사는 국가적 (혹은 특정한) 경계를 넘어서는 운동이나 사람 및 사상의 범주에 관한 것이다. 이는 한 국가의 자료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좀 더 실증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최근 기본적인 범주들이 재구성되면서 새로운 문제의식이 형성되었다. 국가라는 개념을 지우고 대신 다른 각도에서, 국가적 범위로는 담아낼 수 없는 무수한 사회적 영향력을 아우를만한 넓은 맥락과 역동적 관계망 속에서 (또는 그 바깥에서) 새롭게 현상들을 바라보는 것이다.”¹⁸⁾

이처럼 초국가적 역사는 일국사나 지역사를 넘어서 지구사에 도달하는 식의 지리적 차원의 확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본질은 연구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또 그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달려있다. 국가적 경계로 모든 문제를 설명할 수 없게 된 데에는 국가라는 개념도 한 몫 했다. 매 나이의 주 연구 분야인 이민학(migration studies)에서 ‘초국가적 이민학은 이민 그 자체는 물론이고 국가의 형성과 권위, 국경의 건설,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정치 경제, 문화·사상적 측면에서의 젠더, 인종, 발전에 대한 문제 등을 모두 다루고 있다.’ 이때 초국가적 역사는 근본적으로 민족주의 사관에 대한 도전이라 할 수 있다. 민족이나 국가를 헤겔(Hegel)의 ‘역사 주체’로 설정하는 대신, 역사적 과정에서 구성된 존재에 불과하다고 보고 국가의 역사가 아닌 ‘국가와 문화권을 초월한’ 현상 자체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초국가적 역사는 주제가 다양한 만큼 접근법 역시 다양하나, ‘연결성’을

18) Mae M. Ngai, 2012 “Promises and Perils of Transnational History,” *Perspectives on History: The Newsmagazine of the American Historical Association*, December. 이 논문과 같은 시기에 간행된 미국 역사학회 학술지에도 초국가적 역사에 관련된 글이 몇 편 실려 있다.

강조한다는 것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초국가적 역사는 공간적으로 떨어진 두 지역에서도 개별 지역 내부의 현상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보다 넓은 범위의 역사적 원동력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 다양한 각도에서 작용하는 영향력들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여기에서 강조하는 연결성이라 할 수 있다.¹⁹⁾ 초국가적 역사는 이 연결성이라는 측면에서 ‘비교 사학’과 구별된다. 이미 20여 년 전에 인도학자 산재이 수브라마니암(Sanjay Subrahmanyam)이 이러한 차이를 강조하면서 초국가적 역사의 핵심 개념이 된 ‘역사의 연결성’을 제창한 바 있다.²⁰⁾ 비교사 역시 국가적 경계를 넘어서기는 하나, 이는 결국 특정 국가나 시대의 역사를 깊이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대부분의 비교사적 연구들은 하나의 성공적 모델을 상정해 두고, 비교를 통해 여타 사회, 문화를 평가하고 실패 여부를 가늠하곤 했다. 그 결과 국가주의, 민족주의의 영향에 노출되었고 특정 단체나 국가의 역사적 우월성을 확인하는 도구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 반면 매 나이와 수브라마니암이 주장했듯 ‘초국가적 관점’은 ‘민족주의 사관’보다는 한 차원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폭넓은 세계적 현상’의 지역적 우연성을 확인하면서 국가나 민족을 넘어서는 거시적 안목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초국가적 접근 방식은 경제사, 과학사, 종교사 등 ‘연결성’을 강조하는 분야에서 활용해 볼 수 있다. 이때의 핵심은 국가적 경계를 허무는 데 있다. 그런데 ‘국가적’ 경계를 넘어야 초국가적 역사를 서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전근대 국가 혹은 국가 형성 이전의 역사는 초국가적 시각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일까? 민족 국가나 근대적 국경 개념이 확립되기 전은 또

19) 예를 들어서, Eric Tagliacozzo, Helen F Siu, and Peter C Perdue, eds., 2015 *Asia inside out: Connected Place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20) Sanjay Subrahmanyam, 1997 “Connected Histories: Notes towards a Reconfiguration of Early Modern Eurasia,” *Modern Asian Studies* 31, no. 3 (July 1): pp. 735~762

어떠한가? 때 나이에 의하면 영미권에서의 전근대사 연구는 대체로 그 본질에 ‘초국가적 특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Atlantic world’ history나 ‘Indian Ocean’ history, ‘medieval Europe’처럼 대중화된 용어들에 이미 초국가적 시각이 투영되어 있다는 것이다.²¹⁾ 따라서 ‘동아시아 역사’ 역시 이미 ‘초국가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경우,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이 제시한 ‘역사적 국가’처럼 한-중-일의 전근대 역사에서 일국의 경계를 넘어서려는 노력이 추가로 요구된다.²²⁾ 최근 데이비드 로빈슨(David Robinson)이 펴낸 *Empire's Twilight*은 한국과 몽골 제국의 역사를 지역적 시각으로 묶어서 관찰한 선례라 할 수 있다. 그는 몽골과 고려의 연결성을 강조하며 홍건적의 난이나 고려 지배층과 몽골 조정 간의 갈등 등 양측이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들이 상호 관계를 점차 변화시켰고, 그 결과 몽골 제국이 와해되었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공민왕의 개혁은 고려 ‘국가’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고려 왕실 혹은 공민왕 개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 해석된다.²³⁾

국가나 개별 사회 대신 지역 단위에 주목한다면, 기왕의 해석들을 새롭게 풀어낼 가능성이 열린다. 해양사가 대표적인 예이다. 싱 항(Xing Hang)은 대만을 점령한 정성공(鄭成功)과 관련해, 그의 세력은 단순히 ‘반청 복명’을 내세우거나, 해적으로서 약탈만을 일삼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일반적 해석은 대륙의 시각에서 바라본 편견일 뿐이며, 해양이라는 무대에

21) Ngai, 2012 “Promises and Perils of Transnational History.”

22) E. J. Hobsbawm, 1990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Programme, Myth, Reality* (Cambridge [Engl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68~69

23) David M. Robinson, 2009 *Empire's Twilight : Northeast Asia under the Mongol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for the Harvard-Yenching Institute : Distributed by Harvard University Press)

서의 자율성을 무시하였다는 입장이다. 정성공 세력은 물론이고 그 이전의 왜구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육지의 시각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²⁴⁾ 해양에서의 자율성과 그 ‘연관성’은 육지의 시각만으로는 포착할 수 없으므로, 이를 ‘동아시아 지중해(East Asian Mediterranean)’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²⁵⁾

그렇다면 조선의 경우 초국가적 역사관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가장 수월한 방법은 국경을 초월한 해양이라는 무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²⁶⁾ 물론 조선시대는 상대적으로 해양으로의 진출이 활발하지 않았다. 해양을 중심으로 조선을 해석한다면 새로운 문제들을 부각시킬 수 있다. 우선, 해상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이전 시기와 조선을 비교하고, 왜 이때에 활동이 잠잠해졌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조선 내부의 요인은 물론이고 지역적 변동도 함께 고려하며 풀어가야 할 것이다. 신대륙의 발견과 해상 무역의 확대가 불러온 전근대적 ‘세계화’와 조선의 관계 역시 흥미로운 주제이다. 정화(鄭和)나 콜럼버스 같은 인물이 등장하지는 않았으나, 신대륙의 작물과 담배, 서구식 군사 기술, 일본의 은이나 동남아시아의 궁각 등을 통해 조선 사회도 충분히 지구적 유통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었다. 이들

24) Xing Hang, 2015 *Conflict and Commerce in Maritime East Asia: The Zheng Family and the Shaping of the Modern World, C. 1620-172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5) Angela Schottenhammer, ed., 2008 *The East Asian Mediterranean: Maritime Crossroads of Culture, Commerce and Human Migration*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26) 해양사는 특히 일본사와 관련된 연구가 많다. 일례로 Adam Clulow의 저작을 들 수 있다. Adam Clulow, 2014 *The Company and the Shogun: The Dutch Encounter with Tokugawa Japa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Adam Clulow, 2013 “Like Lambs in Japan and Devils Outside Their Land: Diplomacy, Violence, and Japanese Merchants in Southeast Asia,” *Journal of World History* 24, no. 2, pp. 335~358

이 조선 사회에 미친 영향력 역시 초국가적 틀에서 검토할 수 있다.

린 헌트(Lynn Hunt)에 따르면 초국가적 역사 해석은 현재의 ‘세계화’ 현상과 맞물려 유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지구의 과거와 그 역사적 관계망들을 이해하고 해석해내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재검토하는 데까지 관심이 확장되었다. 특히 감정과 감성, 신체와 심리 사이의 상호 작용이 주목받고 있다.²⁷⁾ 그렇다면 차나 담배, 커피, 목화 등의 상품(commodity)들이 유통되면서 수반된 감정적 변화 역시 역사 연구의 주제가 될 수 있다.²⁸⁾ 기존 연구들은 상품의 유통을 경제사적 측면에서 분석하면서 ‘세계화’와 자본주의, 근대화를 강조하곤 했다. 그러나 문화적, 감성적 측면을 주목할 경우 당시의 ‘세계화’가 비단 ‘자본주의’의 역사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지금의 ‘현대’ 사회를 역사 발전의 최종 단계로 상정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세계화가 최근의 현상만은 아님을 강조한 린 헌트의 주장을 고려한다면, 오늘날의 역사 연구는 ‘심리적·사회적 요소’들을 아울러 관찰하면서 ‘상호 의존성’에 주목해야만 한다.²⁹⁾

물론 초국가적 역사는 물질적 교류 뿐 아니라 지성사나 정치사 등 좀 더 추상적인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초국가적 현상을 ‘연결성’으로만

27) Hunt, *Writing History in the Global Era*, pp. 98~118 다른 지역에 관한 연구는 영어로 작성된 것이 풍부한 편이나 한국을 다룬 것은 많지 않다.

28) Hunt, *Writing History in the Global Era*, pp. 131~142 한국을 다룬 논문은 몇 가지 있다. Felix Siegmund, 2011 “Tubers in a Grain Culture: The Introduction of Sweet and White Potatoes to Chosŏn Korea and Its Cultural Implications,” *Korean Histories* 2, no. 2 : Gregory N. Evon, 2014 “Tobacco, God, and Books: The Perils of Barbarism in Eighteenth-Century Korea,”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73, no. 03 (August), pp. 641~659 : Sven Beckert, 2014 *Empire of Cotton: A Global History* (New York: Alfred A. Knopf)

29) Hunt, *Writing History in the Global Era*, pp. 128~131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이한 지역으로부터의 ‘다원적 영향력’으로 바라본다면, ‘공동 구성(co-construction)’이라는 특징도 잡아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나 문화권에 걸쳐 형성된 개념·사상의 계보 역시 초국가적 틀로 이해해야 한다. 국가나 민족의식, 조선 시대의 천하관이나 중화사상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필자는 박사 논문에서 15~16세기 동아시아 국제 질서 -엄밀하게는 조선과 명의 관계- 를 지지해 준 ‘대명 천하’라는 관념은, 양국이 문학적·외교적 교류와 예절 체계 구축을 통해 ‘공동으로 구성해 낸’ 정치적 구상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명 제국’이라는 이상을 구현하는 데에는 조선의 역할이 필수적이었다는 입장이다.³⁰⁾ 전근대는 물론 근대의 외교 질서를 지탱해온 ‘제국/Empire’, ‘주권/Sovereignty’, ‘국가/Nation’ 등의 개념 역시 역사적 변천과 현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하며 재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외교적 질서를 토대로 형성된 지성사나 사상사를 초국가적 방식으로 해석할 경우 한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3. 패러다임으로서의 ‘Empire’

: 초국가적 역사가 직면하게 될 번역과 용어 문제에 대하여

최근 들어 ‘Empire’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Empire’는 국가 형태의 하나라기 보다는 역사 분석을 위한 범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³¹⁾ 이때에는 ‘Empire’를 ‘제국’이라는 표현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30) Sixiang Wang, 2015 “Co-Constructing Empire in Early Chosŏn Korea: Knowledge Production and the Culture of Diplomacy, 1392–1592” (Ph.D. Diss., Columbia University)

31) Karen Barkey, 2008 *Empire of Difference: The Ottomans in Comparative*

비교사적 관점에서 ‘Empire’를 분석하는 학자들은 이를 단순히 영토가 큰 나라를 뜻하는 ‘제국’으로 치환하는 것을 지양하고, 대신 거시적인 정치 체제의 유동성에 주목할 것을 강조한다.³²⁾ 즉, ‘Empire’는 특정 국가나 세력을 지칭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미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 패러다임은 제도적 통치, 정치적 권위와 같이 광범위한 구상들이 민족, 문화, 영토라는 경계를 넘어서 확장되었을 때 어떤 변동을 보이는가에 관심을 쏟는다. ‘Empire’의 역사를 서술하기 위해서는 권위나 세력의 확장을 넘어서서 이를 지지했던, 혹은 여기에 도전했던 기술, 제도, 이념 등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³³⁾

‘Empire’라는 틀은 분명한 강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동아시아의 역사를 오스만 제국이나 대영 제국, 로마 제국과 비교적 동등한 위치에서 다룰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조선과 명-청 사이의 관계 역시 다른 시대, 공간에 존재했던 비대칭적 관계와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현대 서구 학계로부터 유입된 ‘empire’라는 용어가 과연 동아시아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것일까? 왜 ‘제국’이 아니라 ‘empire’라는 표현을 고수하게 된 것인가? 이는 영어 용어를 차용하며 생긴 ‘번역’ 문제를 되짚어보아야 답할 수 있다.

사실 번역 문제는 모든 비교사적 연구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이다. 다양

Perspectiv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9 : Empire에 대한 비교사적 연구는 Jane Burbank and Frederick Cooper, 2010 *Empires in World History: Power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를 참조.

32) Ann Laura Stoler, 2007 Carole McGranahan, and Peter C. Perdue, *Imperial Formations* (Santa Fe, N.M. Oxford [U.K.]: School for Advanced Research Press ; James Currey), pp. 8~9

33) 필자의 박사 논문도 이러한 ‘Empire’의 정의를 활용하였다. Sixiang Wang, “Co-constructing empire in early Chosŏn Korea,” pp. 5~19

한 문화를 넘나드는 분석을 위해서는 외래어의 활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민족/국가(nation)와 민족주의/국가주의(nationalism) 등의 개념들은 초국가적 역사 연구에 중요한 개념인만큼 그를 둘러싼 해석도 분분하다. 서양의 민족 국가론은 주로 19세기 서유럽의 민족 국가에서 기원했으나,³⁴⁾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이에 영미권 학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사의 어느 시기부터 ‘nation’의 존재를 상정해야 하는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조선은 말할 것도 없고, 현대의 대한민국조차 19세기 서양의 ‘nation’과는 다르다. 그렇다면 한국사에서 전근대 국가 의식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현대 민족-국가의 발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는 기존에 존재했던 집단의식의 변형인가 혹은 그대 이후 새롭게 형성된 것인가? 이러한 문제제기를 피하기 위해 영미권 학계에서는 한국사를 서술할 때 ‘nation’이라는 표현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nation’이라는 개념은 전형적인 서구식 모델만을 위한 것이고, 이와 다른 사례들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여기에서 큰 딜레마가 등장한다. 비서구권에 서양의 이론적 도식을 그대로 대입할 수 없음에도, 영미권 학자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영어로 된 용어를 활용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몇 해 전 작고하신 한국사학자 김자현(JaHyun Kim Haboush)은 사후에 출간된 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이용자와 기존 용어 상호간의 타협이다. 새로운 이용자는 서구권 학계 내에서 가장 적절한 용어를 발견해내야 하고, 역으로 이러한 새로운 용법은 기존 용어의 의미와 새로운 의미를 동시에 지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서구식 용어를 무조건 피하는 대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종내에는 해당 용어의 의미 자체를 변화·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³⁵⁾ 그렇게 된다면

34) 예를 들어 Benedict R. O’G Anderson, 1991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New York: Verso) 를 참조.

35) JaHyun Kim Haboush, 2016 *The Great East Asian War of 1592 and the*

서구의 용어들이 다른 지역의 역사 서술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비교사 역시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nation’ 이외의도 모든 서구식 학술 용어에 해당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외래’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어원과 계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해당 용어가 번역되어 온 내력도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nation’과 그 번역어인 ‘국가’ 혹은 ‘민족’이 어떤 의미적 차이를 지니고 있으며,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활용되어 왔는지 짚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주로 19세기 말에 번역된 단어들이 복잡한 번역 과정을 거쳤는데, ‘nation-민족’ 이외에도 ‘Empire-제국’이나 ‘Sovereignty-주권’ 등이 이에 해당된다.

리디아 리우(Lydia Liu)의 표현을 빌자면 이러한 단어들은 ‘super-sign’이다. ‘Super-sign’은 나름의 문화적·언어적 배경을 지니고 있던 개념들이 정치적 충돌이나 문화적 교류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경우를 일컫는다. 대표적으로 ‘barbarian’과 ‘이(夷)’를 꼽을 수 있다. 원래 서양과 동아시아에서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던 이들 표현은 번역 과정을 거치면서 새롭게 동일한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다.³⁶⁾ Super-sign들은 19세기 이후의 세계화와 관련해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됨과 동시에 19세기 이전의 역사를 연구하는 이들에게는 큰 장애물로 다가왔다. 대부분의 학술 용어들이 19세기에 만들어진 만큼, 이를 번역하는 단계에서 이미 당대 서구 사회의 영향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Empire’와 ‘제국’이 그 전형적인 사례이다. 오늘날 우리가 습관적으로 몽골 제국, 청 제국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제국’이라는 표현은 19세기 이전 사료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Birth of the Korean Nation, ed. William Joseph Haboush and Jisoo M Ki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36) Lydia He Liu, 2004 *The Clash of Empires : The Invention of China in Modern World Making*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pp. 31~69

이에 중국학자 엄복(嚴復, 1854~1921)은 ‘帝國’ 대신 ‘英拜耳’라는 표현으로 ‘Empire’의 개념을 설명한다.³⁷⁾ 물론 ‘제국’을 황제가 통치하는 국가라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그 경우 동아시아에서의 천하 통치론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게 된다. 황제가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통치 영역이 한 국가의 영역을 넘어서 온 세계로 확장되었기 때문이다.³⁸⁾

‘제국’이라는 신조어는 본래 서양 국제법상의 국가와 영토, 주권 의식을 포함하는 개념이다.³⁹⁾ 국제법상으로 한 나라가 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영토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주권 개념은 19세기 말 동아시아에서 상당한 분쟁을 일으켰다. 최근 커크 라센은 한국 개항기의 분쟁들을 재검토했는데, 거기에는 조선과 청이 주권을 두고 벌인 논쟁도 포함되어 있다.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는 조공-책봉 관계가 전제되어 있었기에 조선의 ‘주권’을 누가 갖느냐를 두고 논의가 진행되었던 것이다.⁴⁰⁾ 결과적으로 양국 정부는 조선이 주권을 지니는 동시에 청나라의 제후이기도 하다는 합의를 보았는데, 이는 당시 서양 열강의 시각에서는 무리한 주장이었다. 역설적인 것은 이러한 국제법상의 주권 의식은 서양에서도 최근에 들어서야 자리 잡았다는 사실이다.⁴¹⁾ 로렌 벤톤(Lauren Benton)에 의하면 영토에 대한 지배는 ‘전근대 주권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자 제국

37) Lydia He Liu, 1995 *Translingual Practice: Literature, National Culture, and Translated Modernity--China, 1900-1937*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27~42, 259~352, 269

38) Hevia, *Cherishing Men from Afar*, pp. 30~37

39) Wang, “Co-constructing empire,” pp. 16~17

40) Larsen, *Traditions, Treaties, and Trade*, pp. 23, 31~32; 2013 “Comforting Fictions: The Tribute System, the Westphalian Order, and Sino-Korean Relations,”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13, no. 2 (August), pp. 233~257

41) Richard S. Horowitz, 2005 “International Law and State Transformation in China, Siam, and the Ottoman Empire during the Nineteenth Century,” *Journal of World History* 15, no. 4 (May 16), pp. 445~486

적인 통치의 한 구성 요소였다. 유럽에서 영토를 토대로 형성된 근대적 주권⁴²⁾은 유럽 제국이 점차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나가면서 발생한 다양한 관습과 법제 사이의 복잡한 상호 작용을 통해 형성되었다.⁴³⁾ 결국 주권과 영토의 지배 사이의 밀접한 관계는 선형적 사실이 아니라 역사적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주권이 번역을 통해 새롭게 탄생한 용어임을 주지한다면, 서양에 서조차 모호한 주권/ ‘sovereignty’이라는 개념을 해당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조선 전기/중기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조선 시대에 ‘주권’이라는 용어가 없었다고 해서 비슷한 관념/개념이 없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첸 리(Chen Li)의 책에서는 청나라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청나라에는 서구식 주권 개념이 없었음에도 그들은 분명 ‘주권적 인식(sovereign thinking)’을 지니고 있었다.⁴⁴⁾ 앞서 언급한 ‘nation’과 마찬가지로, ‘주권’ 역시 그 개념을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비교사를 수행하는 학자의 소임은 한 지역의 역사를 규범적 전형으로 고정하는 대신, 다양한 역사적 현상들을 수용하며 비교사적 범주를 넓혀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의 ‘주권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권’의 정의를 탄력적으로 내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조선에 어울리는 정의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는 ‘주권’의 의미를 찾아내기도 전에 해당 사회의 고정

42) ‘주권’의 역사성은 많은 논쟁이 벌어지는 주제이다. Jeremy Adelman, 2006 *Sovereignty and Revolution in the Iberian Atlantic*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을 참조.

43) Lauren A Benton, 2010 *A Search for Sovereignty: Law and Geography in European Empires, 1400-1900*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3~39

44) Li Chen, 2016 *Chinese Law in Imperial Eyes: Sovereignty, Justice, and Transcultural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된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변증법적 딜레마를 낳는다. 이는 잠정적인 정의를 내리고 추후의 연구 상황에 따라 수정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조선과 명/청과의 관계에서 ‘주권 인식’이 형성되는 데에는 영토 뿐 아니라 예의와 정통의 역할도 주요했다. 사실 영토보다는 칭호(稱號), 의관(衣冠), 의식(儀式), 명분(名分)과 관련된 예의적 분쟁⁴⁵⁾과 도통(道統), 성교(聲教), 교화(教化), 문물(文物), 문장(文章) 등 문화적 정통성과 관련된 개념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고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통성’은 ‘legitimacy’의 번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정통’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합리성을 넘어서, 좀 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정통’에서 ‘통(統)’은 공간적 ‘지배’와 시간적 ‘계승’을 동시에 나타내는 표현이다. 통시적(通時的) 계승과 공시적(共時的) 지배는 ‘정통’이라는 표현으로 합리화 될 수 있었고, 조선이나 중국의 정치적 합리성이나 상호 관계 역시 이러한 통시적 계승을 전제로 하여 형성된 것이었다. 최근 위엔충 왕(Yuanchong Wang)의 연구에서 언급되었듯, 청이 명의 정통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무력 탈취와 더불어 정치적 상징성까지 확보해야 했다. 이때 조선은 명의 번국(藩國)으로서 그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상징이 되었다.⁴⁶⁾ 이와 동시에 조선 역시 독자적인 ‘정통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동국’이나 ‘해동’, ‘별건곤(別乾坤)’과 같은 별도의 정치적 계승 의식도 가지고 있었다. ‘천하일통’을 꿈꿨던 동아시아 정치 문화에서 ‘통’은 원칙적으로 나눌 수 없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단군이나 기자로부터 시작되는 독자적인 통시적 계승을 따라 정치체를 형성해 낸 조선의 경우는 실로 미묘하고 복잡

45) 예의와 의식의 중요성을 다루는 논문은 Joshua Van Lieu, 2009 “The Politics of Condolence: Contested Representations of Tribute in Late Nineteenth-Century Chosŏn-Qing Relations,” *Journal of Korean Studies* 14, no. 1, pp. 83~115를 참조

46) Yuanchong Wang, 2015 “Claiming Centrality in the Chinese World: Manchu-Chosŏn Relations and the Making of the Qing’s Zhongguo Identity, 1616-1643,” *Chinese Historical Review* 22, no. 2 (November), pp. 95~119

한 것이었다. 따라서 중국과 고려·조선 사이의 정치적 관계는 단순한 조공-책봉 체제로는 해석하기 어렵고, 통치권 계승을 둘러싼 두 체제 사이의 경쟁도 주목해야 설명할 수 있다. 영미권에서는 아직 이런 접근을 시도한 연구는 등장하지 않았다. ‘정통’에 대한 초국가적 해석과 이 개념이 한국과 중국에서 유용된 과정, 상호간의 대치와 그것이 교류에 미친 영향, 이를 타협해 나간 방식 등을 새롭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주권’의 시간적 측면을 ‘정통’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면, 공간적 측면은 ‘성교’와 ‘교화’로 풀어낼 수 있다. 피터 볼(Peter Bol)이 지적했듯, 유교 정치 문화에서는 백성 교화의 책임을 담당하는 자가 자연스레 정치적 영향력까지 행사하게 되는데 이는 종종 국가와 지배 계층 사이의 문제를 야기하곤 했다.⁴⁷⁾ 조선에서의 기사 숭배는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기사로부터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것은 조선 왕조의 통치를 합리화 할 뿐 아니라 그로부터 나오는 ‘교화’의 독자성, 왕과 지배층 사이의 관계 형성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 백성을 교화하는 것을 국가의 ‘주권’이 발현된 결과라 본다면, 이러한 교화가 미칠 수 있는 범위를 그 ‘주권’의 공간적 한계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문중양과 최종석의 최근 논문에서 거론된 ‘성교 자유(聲敎自由)’의 주제 역시 이와 관련되어 있다.⁴⁸⁾ ‘성교’나 ‘교화’의 범위는 애덤 보넷(Adam Bohnet)이 언급했듯 조선의 변경 지역 지배와 ‘향화인’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⁴⁹⁾ 이상을 고려해 보았

47) Peter K. Bol, 2008 *Neo-Confucianism in Histor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 Distributed by Harvard University Press), pp. 115~144

48) 최종석, 2013 「조선초기 국가 위상과 ‘聲敎自由」 『한국사연구』 162, 3~44쪽 : 문중양, 2013 「15세기의 ‘風土不同論’과 조선의 고유성」 『한국사연구』 162, 45~86쪽

49) Adam Bohnet, 2011 “Ruling Ideology and Marginal Subjects: Ming Loyalism and Foreign Lineages in Late Choson Korea,” *Journal of Early Modern*

을 때, 현대적 ‘주권’에 가장 가까운 조선의 개념은 ‘정통’과 ‘교화’ 사이의 어디쯤이 아닐까 싶다.

대체로 ‘주권’은 영토나 인구 등에 대한 권리의 주장과 그 유지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전근대 아시아에서 이러한 ‘권리’가 어떻게 다뤄졌는지 살펴보려 한다. ‘독도’나 ‘센가쿠’와 같은 현대적인 영토 분쟁은 국제 조약이나 국제법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하게 된다. 반면 전근대에는 사서(史書)를 기반으로 한 관례와 예제가 그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조선과 원·명·청 사이의 영토 분쟁들은 대부분 상세한 조선의 역사 기록들을 통해 해결되었다.⁵⁰⁾ 알렉산더 우드사이드(Alexander Woodside)가 주장했듯, 역사적 지식은 ‘정체성의 경계를 확정짓는’ 역할 뿐 아니라 외교적으로 이 경계를 유지시키는 역할도 담당했다.⁵¹⁾ 이처럼 역사적 지식의 생산이 정치적인 독자성을 주장하기 위한 한 방편이었다면, 역사 지식과 정치 세력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수십 년 전에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나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가 강조한 힘과 지식의 이분법적 관계를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전근대 동아시아에는 푸코가 제시한 감시적인(disciplinary) 힘도,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식 지식도 적용되지 않는다.⁵²⁾ 사이드가 묘사한 식민

History 15, no. 6 (November) pp. 477~505 : 2011 “From the Chu-Hat-Hall Duke to Kang Shijue, and Back Again: Biography and State Control in Northern Hamgyŏng,” *Korean Histories* 3, no. 1, pp. 1~22

50) 19세기 말 동아시아의 영토 분쟁과 관련해서는 Nianshen Song, 2013 “My Land, My People: Discourses and Practices in the Tumen River Demarcation, 1860s to 1910s” (Ph.D. Diss., The University of Chicago)를 참조.

51) Alexander Woodside, 1998 “Territorial Order and Collective-Identity Tensions in Confucian Asia: China, Vietnam, Korea,” *Daedalus* 127, no. 3 (Summer), p. 199

52) Michel Foucault, 1979 *Discipline and Punish : The Birth of the Prison* (New York: Vintage Books) ; Edward W Said, 1979 *Orientalism* (New York: Vintage Books)

지와 제국 사이 관계에서는 항상 ‘제국’이 우월한 ‘지식’을 통해 식민지를 지배하게 되었지만, 조선의 경우 물리적 힘은 약했을지 몰라도 지식이 수준은 월등하였다. 따라서 당시 조선과 제국의 관계는 서구 열강과 식민지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조선과 제국 사이에 형성된 힘과 지식의 관계에 관해서는 매튜 모스카(Matthew Mosca)의 논저 이상으로 조선의 지식과 정치에 주목한 영문 연구서가 없다.⁵³⁾ 조선시대 외교사에서 ‘지식’과 ‘힘’의 관계는 장차 좋은 연구 과제가 되리라 본다.

맺음말

이 글은 한국사의 초국가적 서술 가능성 및 한국사에 대한 초국가적 관심 환기에 대한 고심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이다. 한국사를 세계사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연결성’과 ‘패러다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자는 초국가적 역사를 서술할 때 두 지역의 역사를 상호 연결하기 위해, 후자는 두 지역의 유사한 역사 현상을 하나의 틀 안에서 비교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전제되어 있다면, 다양한 지역을 연구하는 이들 사이에 소통이 보다 원활해 질 것이다.

최근 영미권 학계에서는 80~90년대와 달리 ‘패러다임’과 그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린 헌트가 설명했듯,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문화 이론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역사학에는 이미 상당 부분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인 ‘문화적

53) Matthew W. Mosca, 2011 “The Literati Rewriting of China in the Qianlong-Jiaqing Transition,” *Late Imperial China* 32, no. 2 (December) pp. 89-IV; 2013 *From Frontier Policy to Foreign Policy : The Question of India and the Transformation of Geopolitics in Qing China*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전환’과 ‘언어적 전환’이 내재되어 있다.⁵⁴⁾ 이는 영미권에서 ‘세계사적 시각’으로 비서양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몇 가지 리스크를 안겨준다. 특히 이는 서구식 패러다임이나 이론을 활용할 때 심각하게 발생한다.

서양의 이론을 직접 적용하여 설명한 뒤에 푸코나 마르크스(Karl Marx)가 ‘유럽에서 그랬다’고 한 것이 ‘한국에서도 그랬다’거나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식의 결론을 내리는 것은 학문적 의미가 크지 않다. 이들의 이론이 결코 보편적인 ‘사실’이나 모범이 아니기 때문이다. 푸코의 ‘근대성(modernity)’을 프랑스에 적용할 때에도 역사학자라면 역사적 맥락이나 사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⁵⁵⁾ 하물며 한국의 경우 그의 이론과 역사 발전 과정이 같을 리 없다.⁵⁶⁾ 만일 이러한 이론들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해당 이론 자체를 적용하는 대신 이들이 제기한 질문과 주제 등을 재 적용해야 할 것이다. 실질적 현상이 같지 않다고 해서 이론의 활용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나마 이러한 경우는 저자가 구상한 패러다임과 방법론이 글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설령 그것이 잘못 활용된다 하더라도 쉽게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처럼 방법론이나 패러다임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는다면, 이를 차용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더 심각해 질 수 있다. 특정 사례를 위해 구상된 패러다임이나 이론을 다른 곳에 그대로 적용하면서도 그 본질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패러다임에 대한 고민의 부재는 결국 밖에서 만들어진 패러다임을 비판 없이 안으로 끌어오는 결과를 낳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증적인 역사 연구와 동시에 넓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54) Hunt, *Writing History in the Global Era*, pp. 35~40

55) Hunt, *Writing History in the Global Era*, pp. 41~43, 141~147

56) Dipesh Chakrabarty, 2007 *Provincializing Europe: Postcolonial Thought and Historical Difference (New Edition)*, New edi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것이다. 그래야만 실증적인 연구를 토대로 한결 정교하고 통찰력 있는 방법론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 특히 전근대사를 전공하는 연구자들이 한국사를 위한 문제의식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이를 다른 지역/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를 희망한다. 세계화 시대에 한국사가 세계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지 고민했으면 하는 것이다.

다른 분야의 학자들과 교류를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외국 학계의 동향을 따라갈 것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화에 걸맞은 초국가적 역사를 서술하기 위해서이다. 조 글디(Jo Guldi)와 데이비드 아미타지(David Armitage)가 강조했듯, 세계화 추세는 점차 심화될 것이며 이에 대비하여 장기적 시각과 넓은 안목을 갖추어야 한다. ‘전지구적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지식 창출에 대학이, 역사학이, 나아가 인문학이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가는 전세계의 사학자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향후 지속될 환경 문제나 공유지의 비극, 전지구적 지배 문제 등은 일국의 범주를 넘어서 세계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⁵⁷⁾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를 이해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내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⁵⁸⁾ 물론 이것은 온전히 사학자만의 역할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양한 지역, 시대, 분야를 다루는 학자들과의 활발한 교류가 미래로 내딛는 한 걸음을 밝혀줄 것이라는 사실이다.

투고일자 : 2015. 12. 04. 심사일자 : 2015. 12. 04. 게재확정일자 : 2015. 12. 12.
주 제 어 : 초국가적 역사, 조공-책봉 관계, 제국, 번역과 패러다임, 한국사, 조선 시대
Key words : Transnational history, tributary relations, empire, translation and paradigms,
Korean history, Chosŏn Korea

57) Jo Guldi and David Armitage, 2014 *The History Manifesto*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61~116, 특히 86~87, 95~100 쪽을 참조.

58) Guldi and Armitage, *The History Manifesto*, pp. 13, 117~125

참고문헌

- 이익주 등, 2010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조선-청 관계」 『동아시아 국제 질서 속의 한중 관계사 : 제언과 모색』, 동북아역사재단
- 문중양, 2013 「15세기의 ‘風土不同論’과 조선의 고유성」 『한국사연구』 162
- 박원호, 2012 「「동아시아사로서의 한국사」를 위한 마지막 提言」 『歷史學報』 216
- 최종석, 2013 「조선초기 국가 위상과 ‘聲敎自由」 한국사연구 162

- Adelman, Jeremy. 2006. *Sovereignty and Revolution in the Iberian Atlantic*,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Anderson, Benedict R. O’G. 1991.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New York: Verso
- Barkey, Karen. 2008. *Empire of Difference: The Ottomans in Comparative Perspectiv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ckert, Sven. 2014. *Empire of Cotton: A Global History*. New York: Alfred A. Knopf
- Benton, Lauren A. 2010. *A Search for Sovereignty: Law and Geography in European Empires, 1400--1900*.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hnet, Adam. 2011. “Ruling Ideology and Marginal Subjects: Ming Loyalism and Foreign Lineages in Late Choson Korea.” *Journal of Early Modern History* 15, no. 6 (November): 477-505
- _____. 2012. “From the Chu-Hat-Hall Duke to Kang Shijue, and Back Again: Biography and State Control in Northern Hamgyŏng.” *Korean Histories* 3, no. 1: 1-22
- Bol, Peter K. 2008. *Neo-Confucianism in Histor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Distributed by Harvard University Press.
- Breuker, Remco E. 2010. *Establishing a Pluralist Society in Medieval Korea, 918-1170: History, Ideology and Identity in the Koryŏ Dynasty*. Leiden; Boston: Brill
- Burbank, Jane, and Frederick Cooper. 2010. *Empires in World History: Power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hakrabarty, Dipesh. 2007. *Provincializing Europe: Postcolonial Thought and Historical Difference (New Edi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hen, Li. 2016. *Chinese Law in Imperial Eyes: Sovereignty, Justice, and Transcultural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Clulow, Adam. 2013. "Like Lambs in Japan and Devils Outside Their Land: Diplomacy, Violence, and Japanese Merchants in Southeast Asia." *Journal of World History* 24, no. 2: 335-58
- _____. 2014. *The Company and the Shogun: The Dutch Encounter with Tokugawa Japa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Evon, Gregory N. 2014. "Tobacco, God, and Books: The Perils of Barbarism in Eighteenth-Century Korea."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73, no. 03 (August): 641-59
- Fairbank, John King, ed. 1968. *The Chinese World Order;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Guldi, Jo, and David Armitage. 2014. *The History Manifesto*.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boush, JaHyun Kim. 2016. *The Great East Asian War of 1592 and the Birth of the Korean Nation*. Edited by William Joseph Haboush and Jisoo Ki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Hang, Xing. 2015. *Conflict and Commerce in Maritime East Asia: The Zheng Family and the Shaping of the Modern World, C. 1620-172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via, James Louis. 1995. *Cherishing Men from Afar: Qing Guest Ritual and the Macartney Embassy of 1793*.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Hobsbawm, E. J. 1990.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Programme, Myth, Reality*. Cambridge [Engl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rowitz, Richard S. 2005. "International Law and State Transformation in China, Siam, and the Ottoman Empire during the Nineteenth Century." *Journal of World History* 15, no. 4 (May 16): 445-86.
- Hunt, Lynn. 2014. *Writing History in the Global Era*. New York: W. W.

- Norton.
- Kang, David C. 2010. *East Asia Before the West: Five Centuries of Trade and Tribut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Kang, Hyeok Hweon. 2014. "Big Heads and Buddhist Demons: The Korean Musketry Revolution and the Northern Expeditions of 1654 and 1658." *Journal of Chinese Military History* 2, no. 2: 127-89.
- Larsen, Kirk W. 2013. "Comforting Fictions: The Tribute System, the Westphalian Order, and Sino-Korean Relations."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13, no. 2 (August): 233-57.
- _____. 2008. *Tradition, Treaties, and Trade: Qing Imperialism and Chosŏn Korea, 1850-1910*.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Distributed by Harvard University Press.
- Lewis, James B, ed. 2014. *The East Asian War, 1592-1598: International Relations, Violence and Memory*. New York: Routledge.
- Liu, Lydia He. 2004. *The Clash of Empires: The Invention of China in Modern World Making*.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5. *Translingual Practice: Literature, National Culture, and Translated Modernity--China, 1900-1937*.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 Mosca, Matthew W. 2013. *From Frontier Policy to Foreign Policy: The Question of India and the Transformation of Geopolitics in Qing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11. "The Literati Rewriting of China in the Qianlong-Jiaqing Transition." *Late Imperial China* 32, no. 2 (December): 89 - IV.
- Ngai, Mae M. 2012. "Promises and Perils of Transnational History." *Perspectives on History: The Newsmagazine of the American Historical Association*, December.
<https://www.historians.org/publications-and-directories/perspectives-on-history/december-2012/the-future-of-the-discipline/promises-and-perils-of-transnational-history>
- Park, Saeyoung. 2011. "Sacred Spaces and the Commemoration of War in Choson Korea." Ph.D. Diss.,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 Rawski, Evelyn Sakakida. 2015. *Early Modern China and Northeast Asia: Cross-Border Perspectiv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binson, David M. 2009. *Empire's Twilight: Northeast Asia under the Mongol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for the Harvard-Yenching Institute: Distributed by Harvard University Press.
- Robinson, Kenneth R. 2000. "Centering the King of Chosŏn."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59, no. 1: 33-54.
- Rossabi, Morris, ed. 1983. *China among Equals: The Middle Kingdom and Its Neighbors, 10th-14th Centuri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chottenhammer, Angela, ed., 2008. *The East Asian Mediterranean: Maritime Crossroads of Culture, Commerce and Human Migration*.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 Siegmund, Felix. 2014. "The Circulation of Military Knowledge and Its Localization. Some Notes on the Case of Military Techniques in Late Chosŏn Korea." *In Space and Location in the Circulation of Knowledge (1400-1800)*. Korea and Beyond, edited by Marion Eggert, Felix Siegmund, and Dennis Würthner.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 _____. 2011. "Tubers in a Grain Culture: The Introduction of Sweet and White Potatoes to Chosŏn Korea and Its Cultural Implications." *Korean Histories* 2, no. 2.
- Song, Nianshen. 2013. "My Land, My People: Discourses and Practices in the Tumen River Demarcation, 1860s to 1910s." Ph.D. Diss., The University of Chicago.
- Stoler, Ann Laura, Carole McGranahan, and Peter C. Perdue. 2007. *Imperial Formations*. Santa Fe, N.M. Oxford [U.K.]: School for Advanced Research Press; James Currey.
- Subrahmanyam, Sanjay. 1997. "Connected Histories: Notes towards a Reconfiguration of Early Modern Eurasia." *Modern Asian Studies* 31, no. 3: 735-62.
- Tagliacozzo, Eric, Helen F Siu, and Peter C Perdue, eds. 2015. *Asia Inside Out: Connected Place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Van Lieu, Joshua. 2009. "The Politics of Condolence: Contested Representations of Tribute in Late Nineteenth-Century Chosŏn-Qing Relations." *Journal of Korean Studies* 14, no. 1: 83-115.
- Waley-Cohen, Joanna. 2004. "The New Qing History." *Radical History Review* 88, no. 1: 193-206.
- Wang, Sixiang. 2015. "Co-Constructing Empire in Early Chosŏn Korea: Knowledge Production and the Culture of Diplomacy, 1392-1592." Ph.D. Diss., Columbia University.
- Wang, Yuanchong. 2015. "Claiming Centrality in the Chinese World: Manchu-Chosŏn Relations and the Making of the Qing's Zhongguo Identity, 1616-1643." *Chinese Historical Review* 22, no. 2 (November): 95-119.
- Womack, Brantly. 2010. *China Among Unequals: Asymmetric Foreign Relations in Asia*. World Scientific Publishing Company.
- _____. 2006 *China and Vietnam: The Politics of Asymmet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oodside, Alexander. 1998. "Territorial Order and Collective-Identity Tensions in Confucian Asia: China, Vietnam, Korea." *Daedalus* 127, no. 3 (Summer): 191-220.
- Yun, Peter. 2002. "Confucian Ideology and the Tribute System in Chosŏn-Ming Relations." *Sach'ong* 55, no. 9.

<Abstract>

History of East Asian Diplomacy: Comparative and Transnational Paradigms in Anglophone Historical Scholarship

Sixiang WANG

In Anglophone historiography, transnation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s have enriched our understanding of interstate relations, displacing the position of traditional diplomatic history. A comprehensive and authoritative of discussion these trends' implications for the historiography of East Asia is desirable, but the considerable scholarly output of the last decade far exceeds what can be responsibly addressed in the scope of one essay. This discussion, then, will focus on several key issues relevant to the history and historiography of Korea and its place in early modern East Asia.

It will consider once prevailing historiographical approaches to interstate relations, such as “the tributary system” and “the Chinese World Order,” in light of recent approaches in transnational and comparative history. These approaches, with their emphasis on “connectivity” and “co-construction,” can highlight the roles of material and knowledge exchange, and of cultural, literary, and ritual practices in dynamically shaping relationships between countries and societies that might otherwise appear to be structurally predetermined.

The discussions here suggest also the value of writing Korean history with an eye to potential dialogue with other disciplinary and “area studies” fields. Not only can Korean history draw from paradigms and approaches developed elsewhere, but research in Korean history can also contribute to their development, especially in methodological or theoretical terms. This potential, however, is undercut by a certain paradox. Shared paradigms and scholarly vocabulary are prerequisites to effective exchange, but such dialogue tends to rely on the deployment of Western-language origin terminology and concepts, such as “nation,” “empire” and “sovereignty,” to give a few examples. The task at hand then is to develop paradigms and analytical approaches that make explicit the accompanying risks of using “foreign” terminology and the process of their translation, while fulling exploiting the opportunities of communication they open up. These tasks are at once essential for productive conversations between scholars working in an Anglophone context and Korean language

scholarship. Moreover, these conversations will only become more important in a globalizing world where transnational intellectual communities will have increasingly significant roles to play.